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9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0(통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강변에 핀 코스모스가 가을을 재촉하는 입추(立秋) 절기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의 한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처진 어깨와 늘어진 팔에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을 수확의 기쁨을 꿈꾸며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생명과 평화를 일구는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당신의 종들을 돌아봐주십시오. 척박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가야할 길이 아득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순간순간 외로움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3,4 인도자

♠ 교 독 문 69. 이사야40장(2)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광권희 권사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211(통346).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다함께

성경봉독 I. 사61:1-6 인도자

II. 렘15:15-18 백혜숙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두꺼비처럼 김재홍 목사

II. 주님의 손에 붙들려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585(통384).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확실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모호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길을 찾으며 사십시오. 흔들릴수록 삶의 무게 중심을 낮추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마저 흔들리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어머니의 집처럼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품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막막함 가운데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월례회	기도의 밤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김인걸 장로	김제우 학생 정원석 집사

8월	영접위원	한상익 박범희 배근수 강순배 박미영 김금순
	헌금위원	조병무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창조의 하느님을 찬미하는 데 있어서의 난점들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창1:31). 이것은 인류와 다른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에 동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피조세계는 실제로 “좋은가?” 하느님이 만든 것은 모두 “참 좋은가?” 이 책은 하느님의 그 말에 동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나 자주 좌절된 바램에서 생겨났다. 결국 우리가 피조세계를 찬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세계의 겉모습과 또 내 경험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께 기꺼이 동의하고 싶다. 그렇다고 20세기 말에 사는 내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다. 창조를 찬미할 우리의 능력은 창조에 참여할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관여하지 않고는 동의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창조에 참여할 때라야만 비로소 창조를 긍정하고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다. 하느님의 협동자만이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다.

창조에 참여, 관여, 협동 또는 참가한다는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료 이루어진 대도시의 황량한 세계에서 브로드웨이에 핀 한 떨기 목련화를 나는 지금 생각한다. 내가 이 목련화와 산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이 한 조각의 자연, 이 동료 피조물을 찬미할 수 있다. 찬미는 내가 이 특정한 목련화를 내적으로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가만히 서 있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목련화를 내 마음에 떠올려본다. 낮과 밤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목련화의 색깔들이 나의 기억 속에 아로새겨지고 목련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성숙한 자각이 나 자신을 성장하게 한다. 이 꽃을 안 다음부터 나는 달라졌다.

이와 비슷하게 별들을 관찰하는 사람도 멀리서 비치는 별들을 관찰하고 인식하고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에 참여한다. 은하계를 보고 있노라면 창조에 대해 찬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름다운 것을 지각하는 과정은 피조물의 질서에 대한 우리의 참여에 근거한다. “하늘이 영원한분의 영광을 찬양하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천상계의 활동

에 참여한다. 이 노래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자신을 잊고 다른 소리들과의 조화 속에 빠져든다. 대규모 성가대에 섞여 함께 노래 부를 때 시공을 잊는 신비한 일치의 경험을 자주 할 수 있으며, 함께 할렐루야를 외칠 때 잠시나마 나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

죽음 앞에서 삶을 선택하는 것은 사랑과 노동을 통해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창조와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창조, 노동 그리고 사랑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서로 결부시킨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것이다. …… 노동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인간들과 함께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고 하느님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거의 의식되지 않는데 그 까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의 불의함 - 계급적인 분열, 잘못된 노동의 분담 그리고 성차별적인 역할규정 - 이 창조를 파괴하며, 지속적인 창조의 가능성을 남성중심적인 노동과 성(性)에 의해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조건들 아래서는, 창조적으로 노동하고 창조적으로 사랑하면서 하느님의 위대한 기획을 실현할 수 없다.
…

오늘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근거는 창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내가 나자렛 출신의 한 가난한 유대인에게서 얻었던 특별한 희망을 지니지 않은 독자들도 나와 함께 땅 전체의 창조에 대한 비전을 추구하는 일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박멸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생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원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의식을 필요로 한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장차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다. 미래를 가지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본래 받은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의 유래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은 반드시 우리에게 매우 다양한 희망의 원천들을 밝혀주며, 우리가 가는 길의 특정한 지점에서 우리를 삶의 원천과 결합시켜 주었던 여러 종류의 성도들과 바보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삶의 원천은 우리 사이에 성장해가는 관용의 정신을 고무시킬 따름이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를 파괴하려는 계획들을 좌절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종교적 다양성- 나는 이 다양성을 우리 전통의 풍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받아들인다 -을 넘어서서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간의 종교적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 창조에 대한 신앙은 지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갖는 길이다.

- 도로테 쥘레, 『사랑과 노동』 중에서

가던 길 멈춰 서서

근심에 가득 차, 가던 길 멈춰 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일까?
나무 아래 서 있는 양이나 젖소처럼
한가로이 오랫동안 바라볼 틈도 없다면
숲을 지날 때 다람쥐가 풀숲에
개암 감추는 것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햇빛 눈부신 한낮, 밤하늘처럼
별들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아름다운 여인의 눈길과 발
또 그 발이 춤추는 맵시 바라볼 틈도 없다면
눈가에서 시작한 그녀의 미소가
입술로 번지는 것을 기다릴 틈도 없다면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 근심으로 가득 차
가던 길 멈춰 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장영숙 김철수 유영남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강인식 김정숙 구명자 김경연 김신옥 김지호 김훈동 유경순 맹은선
 박규석 박경선 박지인 방민안 종일 정현주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임영 정경례 장성호 정미경 최종원 방준조 문규진 정숙 옥귀희
 한상의 정영선 무명1

월정헌금:

김명순 이교영 김수진 김승현 김순자 김지현 김지은 박범희 박미영
 박석희 조항미 박준규 서지영 서정순 왕수명 이동천 이병철 김현진
 이성범 이해동 장재영 김재영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백성래 임원민
 임수연 유지는 이광섭 최윤희

감사헌금:

윤석철 장혜숙 신태진 정부자 원인해 정희민 전성오 홍지희 박시내
 고숙이 무명4

생일감사헌금: 강지은

녹색꿈 헌금: 양재성 강순배 무명1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심	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월례회로 모입니다. 1시 30분부터 모입니다. 모임 중에 양재성 목사의 '은총의 숲'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2. **기도의 밤** : 이번 주 수요집회는 8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3. **농활봉사자모집** : 8월 6일부터 9일까지 천안단비교회로 봉사활동을 갑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청년부로 신청해주세요.
4. **기획위원회** : 오늘 오후 3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5. **신앙실천** : 사람들의 손 글씨를 접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은 짧은 엽서 한 장 써보시기 바랍니다.

* 떡 대접 : 권미숙 집사 (손주 백일)

* 식당 봉사 : 베들레헴 속 (다음 주 : 안디옥 속)

* 설거지 봉사 : 김기성 이은정 (다음 주 : 박문성 박병구)

< 교회학교 여름행사 안내 >

- 유치부 성경학교 : 7월 25일 ~ 26일, 교회
- 아동부 여름 캠프 : 7월 26일 ~ 29일, 흥천 은현수련원
-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 7월 31일 ~ 8월 2일, 인제 원대교회
- 청년부 여름 농활 : 8월 6일 ~ 9일, 천안 단비교회

새교우 소개

신태진 (2남선교회)

정부자 (4여선교회)

신승민 (청년부)

신정민 (청년부)

임세용 (5남선교회)

박석준 (5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